

제목: 빅토리아에서의 4주와 깨달음

[이민아]

방사선학과 이민아, 강원대학교

이메일: ella4332@naver.com

2024학년도 여름학기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단기해외 어학연수 참가 후기

연수대학 소개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서쪽에 있는 빅토리아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27일까지 4주간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캐나다의 서쪽 해안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 있는 주립 종합대학교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대학 중 하나로 줄여서 유빅(ubic)이라고도 부릅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빅토리아 대학교는 1903년 설립된 빅토리아 칼리지(Victoria College)로 1961년 학사학위를 처음으로 수여했고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지금의 빅토리아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총 약 3만 명의 학생과 1,070 명의 전임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 프로그램은 한 주에 20시간에서 30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 후에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 제공되며 홈스테이나 캠퍼스 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학교 내 어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매달 영어수업이 진행되며 다른 수업과 연계도 가능합니다. 수업 이외에는 워크샵, 견학, 스포츠 등 여러 방과후 활동을 통해 캐나다의 문화를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도 담당자가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이때 수업에서 배운 영어를 활용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본문

1. 현지생활

쾌적한 학교시설과 자연이 함께 잘 어우러진 캠퍼스에서 한 달 동안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기숙사는 1인실이라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밖에 있어서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청소를 해주셔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내에 정수기가 없다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물을 먹으려면 학생식당에서 물을 떠 오거나 뜨거운 물을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식당은 카드를 받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이 매우 좋았는데 스쿼시, 배드민턴, 클라이밍 등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고 헬스도 관리를 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했습니다.

2. 영어수업

빅토리아 대학에 도착한 다음 날 쓰기과 말하기 시험을 통해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주차는 배정된 레벨이 본인과 잘 맞는지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레벨 4에 배정받았고 저희 반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1 대 1비율이었는데 한국인 비율이 80 퍼센트가 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다른 반에 비해 외국인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업 시간에 다른 반에 비해 영어로 된 소통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고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면 선생님이 강력히 제지하셨습니다.

문법 및 단어 : 단어는 실제로 많이 쓰는 구동사와 문법은 비교급과 원급 비교를 강조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파트너를 정해줘서 문법이나 단어 표현을 이용해서 작문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한 문법이나 배운 단어를 활용한 작문 과제를 자주 과제로 내주셔서 과제를 하며 숙지하고 또 첨삭 받은 걸 토대로 오답을 수정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쓰기: 쓰기의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에 주말 동안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 과제로 글을 써오면 선생님께서 문법이나 부적합한 표현을 수정해 주셨고 다음날까지 오답을 교정해서 다시 써오면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 듣기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본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1교시와 2교시로 진행이 되었는데 1교시에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깨닫게 된 3가지를 주제로 총 말하기시험 두 번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말하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2교시 수업은 토론이나 말하기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제와 파트너를 정해주면 그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파트너와 주제를 바꿔가며 한 시간가량 영어로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3. 현지에서의 여행

캐나다는 치안이 좋은 나라라서 큰 어려움 없이 여행하기 좋았습니다. 특히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여서 큰 힐링을 받고 왔습니다. 다만 마약이 합법인 나라여서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명소 4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 피셔맨스 와프 공원 (Fisherman's Wharf Park)

파스텔톤 수상 가옥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1859년 빅토리아 최초의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 조성된 수상 가옥 마을입니다. 과거 조선소 일꾼들의 수상 가옥을 지으며 조성되었으며, 조선소가 나간 지금은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남아 명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파스텔톤 건물과 소품, 모형 등으로 꾸며진 마을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는 포토 스팟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운타운에서 15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갈 수 있는 장소인데 알록달록한 수상가옥이 멋졌던 장소입니다.

- 해틀리성 (Hatley Castle)

고풍스러운 이 장소는 영화 데드풀과 엑스맨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철도사업가이자 정치가(BC주의 부총독)였던 제임스 던스무어는 15세기 에드워드 왕 시대의 성을 본뜬 저택을 건축하도록 지시하여 총 565에이커의 광활한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던스무어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성을 관리하던 관리인은 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에 팔았고 교육기관으로 사용하는 조건에 맞게 고성은 로알로즈 사관학교로 이 용 후에 로알 로즈 대학이 인수했습니다.

영화 촬영지로 알려져서 유명해진 이 장소는 영화에 나을법한 비주얼입니다. 입장료는 없었지만 성 안을 들어가 보고 싶다면 별도의 입장료를 구매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부차드 가든 (The Butchart Gardens)

광활한 정원을 볼 수 있는데 정원은 크게 장미 정원(Rose Garden), 일본 정원(Japanese Garden), 이탈리아 정원(Italian Garde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정원입니다. 빅토리아에서 꼭 가봐야 하는 명소 중 하나라고 알려진 부차드 가든은 정원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편도 2시간 이상의 거리와 4만원이 넘는 입장료에 비해서는 크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과는 다른 식물들이 몇 가지 보여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에는 불꽃놀이를 볼 수 있을뿐더러 가끔 이벤트나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 홈페이지에서 보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 테티스 호 (Thetis lake)

여기는 수업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방문한 장소였는데 캐나다의 상징인 호수와 나무를 배경으로 한 자연이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테티스 호수를 따라서 산책로 및 하이킹 코스가 있는데 한 바퀴 다 돌기 위해서는 2시간가량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호수에서는 다들 수영을 많이 하던데 친구들과 수영하러 오기에도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잘 안 알려진 숨은 명소인 것 같습니다.

4. 기억에 남는 과제

본인의 경험 중 배운 3가지에 대해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늘 직접 경험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지난 의미 있던 경험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운 것이나 경험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좋은 과제였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 두 번의 발표를 진행했는데 저는 대학병원 약국에서 봉사한 경험과 13살에 미국으로 어학연수 갔던 경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5. 준비과정이나 현지에서 직면했던 도전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

캐나다에 가기 전부터 밴쿠버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치안이 비교적 좋은 편이고 찾아가는 길 또한 어렵지 않았지만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였으며 페리까지 타야 한다는 것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비행기를 타는 친구가 있어 함께 학교를 찾아가지만 혼자 찾아가더라면 직면하는 여러 변수에 큰 당혹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6. 연수 참가 후 달라진 점

중고등학생 때는 딱히 영어회화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지 가자마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로 온전히 전달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영어가 아닌 수업 시간에는 평소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 내 의견을 영어로 풀어내야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영어를 쓰다 보니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을 익히게 되었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어순에도 점차 적응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연수 참가 후 달라진 점은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7. 앞으로의 계획

3학년이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스펙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토익성적을 준비해야 하고 컴퓨터활용능력과 같은 기타 자격증을 응시 할 예정입니다. 겨울방학에 있을 실습을 위해 준비하기도 하고 내년을 위해 자기소개서나 면접준비를 해보야 할 것 같습니다.

맺음말

어학연수 소감

어학연수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개인의 성장과 글로벌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어학연수의 주요 장점은 언어 능력 향상, 문화적 이해 증진, 자신감과 자립심 향상,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경험과 이력서 강화, 학문적 및 직업적 기회 확대,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 등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어학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어학연수는 언어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합니다. 교실에서의 학습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은 언어 습득을 가속화하고, 발음과 억양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어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는 실전 경험은 교재와는 다른 생생한 언어 사용법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평소에는 접하지 못한 표현을 배우고 더 자연스러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어학연수는 문화적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지 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언어와 문화의 연관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며 각기 다른 문화를 배우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다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어학연수는 자신감과 자립심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적응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자립적인 사고 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로, 어학연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의 교류는 국제적인 인맥을 넓히고, 현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미래의 직업적 기회와 개인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로, 어학연수는 경험과 이력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적인 경험은 이력서에 큰 가치를 추가하며,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 일하고자 할 때 강력한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학연수에서 얻은 다양한 능력은 직업적 성공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어학연수는 학문적 및 직업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은 학문적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적 경험은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진출을 원하는 직업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학연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전체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에도 잘 대처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학연수는 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 자신감과 자립심, 사회적 네트워크, 경험과 이력서 강화, 학문적 및 직업적 기회,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 등 다양한 면에서 유익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어학연수가 개인의 삶과 경력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 참가자를 위한 말

어학연수는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한달가량의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기에 방학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생이 최적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영어를 배우기에 앞서 한 달 동안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살 수 있는 좋은 경험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본인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점을 본받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도 많이 접하거나 배울 수 있고 사회에 나가기 전 다각적인 시야를 가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

어학연수를 준비하며 갑작스럽게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주말이나 늦은 시간에도 답장을 주신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어학연수를 제공해주신 우리 대학교도 이런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참여할 수 없었을 것 같아 해외연수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지에서 수업을 잘 준비하고 담당해주신 선생님과 방과후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인솔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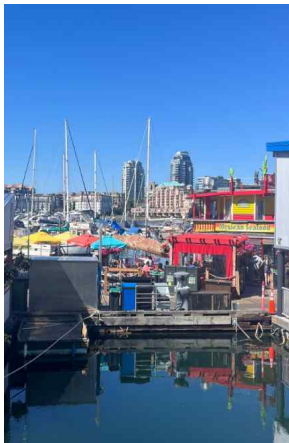
사진



기숙사



체육시설



명소

1. 피셔맨즈와프 공원
2. 해틀리성
3. 부차드 가든
4. 테티스 호